정의선의 도전… 고성능 전기車 '리막'에 8천만 유로 투자

〈1067억원〉

현대車, 미래 '게임체인저' 노려
세계 최고수준 개발 위해 협력
2020년까지 2개 차종 선보일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리막의 마테 리막 CEO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현대·기아자동차가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크로아티아 고성능 하이퍼 전기차 업체 '리막 오토모빌리티(리막)'에 8000만유로(약 1067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양사는 2020년 고성능 전기차·수소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클린 모빌리티'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노린다.

현대·기아차는 13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위치한 리막 본사 사옥에서 정의석 수석부회장, 마테 리막(Mate Rimac) 리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전략적 사업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리막은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업체로 고성능 차량에 대한 소비자 니즈 충족과 당사의 클린 모빌리티 전략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며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와도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해 당사와 다양한 업무 영역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리막의 활력 넘치는 기업 문화가 우리와 접목되면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계약 체결로 현대차 6400만유로(854억원), 기아차 11600만유로(213억원) 등 총 8000만유로(1067억원)를 리막에 투자한다. 투자는 3사 협력에 따른 차량 전동화 분야의 높은 협업 시너지 효과와 함께 리막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내린 결단이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기아차와 리막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고성능 전기차 기술의 핵심은 고전압, 고전류, 고출력 등 고부하 상황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차량 성능 및 차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양산형 전기차 모델에 최적화된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전년대비 123% 증가한 총 6만2000여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상품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2009년 당시 21세 청년이었던 마테 리막이 설립한 리막은 현재 고성능 하이퍼 전동형 시스템 및 EV 스포츠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2016년 개발한 'C_One'은 400m 직선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경주인 드래그 레이싱에서 쟁쟁한 고성능 전기차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제네바모터쇼에서 공개된 'C_Two'는 1888마력의 출력을 바탕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를 단 1.85초 만에 주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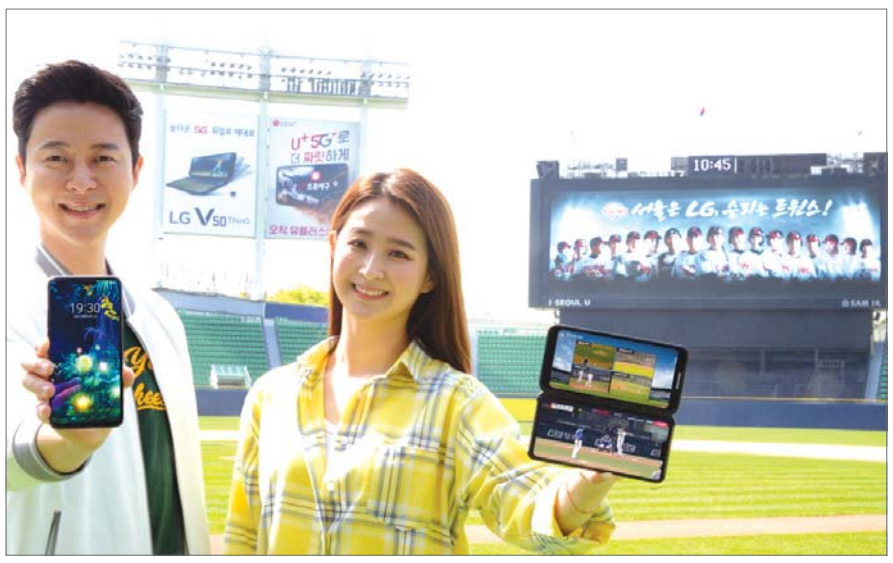
리막은 ▲모터와 감속기, 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고성능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차량 제어 및 응답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어기술 ▲배터리 시스템 등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비교 불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리막과 협력해 2020년까지 N브랜드의 미드십 스포츠 콘셉트카의 전기차 버전과 별도의 수소전기차 모델 등 2개 차종에 대한 고성능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고성능 전동차에 대한 양산 검토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능 수소전기차 모델이 양산에 이를 경우 세계 최초의 고성능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전망이다.

일반 순수 전기차 글로벌 시장이 2014년 13만4000여대에서 2018년 94만2000여대로 성장한 가운데 같은 기간 고성능 전기차도 4만5000여대에서 25만4000여대로 연평균 57%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성능 전기차는 기술 경쟁 차원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커 주요 자동차 업체들 역시 이 시장에 본격 뛰어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토마스 쉬미에라 현대·기아자동차 상품본부장(부사장)은 "현대·기아차는 단순히 '잘 달리는 차'를 넘어 모든 고객이 꿈꾸는 고성능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력을 선도할 동력성능 혁신을 통해 친환경차 대중화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차 핵심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투자와 협업을 과감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최대 카헤일링 업체인 그랩(Grab)에 2억7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올 3월에는 인도 1위 카헤일링 기업 올라(Ola)에 3억 달러(약 3565억원)를 투자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들이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야구장 외야 조명탑에 설치된 옥외광고를 배경으로 LG V50 ThinQ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잠실야구장에 'V50 씽큐' 대형 옥외광고

LG전자, 스마트폰 마케팅 한창

LG전자가 지난 10일 국내 출시한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한창이다.

LG전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야구장 외야 조명탑에 LG V50 씽큐를 알리는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놀라운 5G, 듀얼로 제대로'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광고탑은 약 40m 높이로 경기장을 찾은 모든 관람객들에게 LG V50 씽큐 광고를 한눈에 전달한다. LG전자는 지난해 잠실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이 250만명 이상인 점을 감안해 이번 광고가 많은 고객들에게 LG V50 씽큐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LG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 용산전자랜드 등에도 LG V50 씽큐를 알리는 대형 옥외광고를 선보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